

고려후기 對元관계 --입성책동과 상인--

李貞信 한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고려는 30여년간 몽고와의 전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몽고에 항복하였다. 오랫동안 저항의 전리품으로 원은 고려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영역에 편입시켰다.

몽고의 지배방식에는 첫째, 정복된 땅과 백성을 몽고왕족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는 간접통치, 둘째, 몽고제국의 영역으로 편입하여 직접 다스리는 통치, 셋째, 복속국을 그대로 두고 다루가치로 하여금 내정간섭을 하게 하는 유형인데¹⁾ 고려는 이 세번째 영역에 속하여 어느 정도 자주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 몽고는 이민족 통치의 전제 조건으로 볼모, 호구조사, 역참설치, 군대파견, 식량운송, 다루가치 설치 등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고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대한 고려 측의 끈질긴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호구조사와 일부 역참설치²⁾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몽고의 요구대로 진행되었다.³⁾ 고려는 몽고와의 전쟁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맞서 싸웠음에도 원 간섭기에 들어선 이후에는 삼별초를 제외하고는 원에 항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⁴⁾ 오히려 입성책동 등 원의 일원이 되고자 시도한 모습이 보인다.

고려 사람들은 원 간섭 초기 단계에는 저항의지가 남아 있었지만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원이 지배하면서 차츰 원을 세계의 중심으로 받아들였다. 즉 천자와 제후라는 질서를 인정함으로써 고려가 자치의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처음 事大는 사직의 존속과 자치를 보장받기 위해서였지만 시일이 지남에 따라 고려 지식층은 이같은 고식적 안정의 의례적 차원을 넘어서서 원 지향적이 되어갔다.⁵⁾

논문접수일 : 2005년 9월 15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30일

1) 고병익, 「원과의 관계의 변천」 『한국사』 7, 1981, 391-392쪽

2) 『고려사절요』 22, 충렬왕 27년 4월. <원이 站赤을 세우고 每道에 30-30戶를 두었으나 관리들이 公務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역마를 타고, 왕의 近侍는 20-30필의 말을 차출하여 站戶가 苦役을 이기지 못해 모두 逃散하여 1/3만 남았다고 한다. 이로서 원이 세운 역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자세한 내용은 姜英哲, 「高麗 驛制의 成立과 變遷」 『史學研究』 38, 1984, 95쪽 참조.

3) 고병익은 고려의 끈질긴 항거로 볼모 외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위의 논문 400-401) 그러나 호구조사를 제외하고 여원 연합군의 일본정벌과 정동행성을 통해 나머지 요구조건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지방정권임을 나타내는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관리파견 · 조세징수 · 호구조사이라고 하는데, 고려는 호구조사를 거부하여 조세징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고려사 충렬왕 4년 7월 戊戌) 고려의 독자성을 지킬 수 있었다.

4) 이렇게 된 요인은 충선왕의 만권당을 통해 받아들여진 성리학의 華夷土庶의 이데올로기 영향(주채혁, 「몽골 · 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국사관논총』 8, 1989, 50쪽)이라는 견해와 고려에 파견된 원 및 부원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충렬왕과 고려의 재추 · 관료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친원정책을 표방하였는데 이것이 공민왕대까지 지속된 탓(이익주, 「고려 충렬왕대의 정치상황과 정치세력의 성격」 『한국사론』 18, 1988, 172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5) 김종진, 「이곡의 대원외식」 『태동고전연구』 창간호, 1984.

몽고는 고려통제에 국왕을 창구로 이용하였으므로 왕권이 어느정도 회복될 수 있었다. 그리고 몽고는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고려인을 참여시켰다. 이로서 고려 내부에는 원의 기관에 소속된 인물을 중심으로 원의 협조자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것이 고려사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원의 고려통제 형태는 우선 흥복원 왕준을 우대함으로써 고려를 견제하고, 심왕제도를 두어 고려왕을 견제하며,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고려 내정을 간섭하고,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하여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의 조치들에 의해 왕권이 무력해지고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성책동이다. 고려를 원에 편입시키고자하는 입성의 움직임은 충선왕대 이후 충숙왕과 심왕의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사건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즉 무려 6차례나 입성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입성을 바라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들이 입성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주로 원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계층이었으리라 추정되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의 존재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계속해서 원의 고려통제의 제양상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야기된 입성책동의 연구를 통해 고려 후기 상업·무역의 발달과 상인계층의 대두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주로 3·4·5차 입성책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원의 고려통제의 제양상

원나라는 무려 100년간 고려에 대한 간섭을 자행했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오랜 기간동안 외세의 간섭을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한 고려의 충격은 컸다. 물론 30여년간 몽고의 일방적인 침략을 당하면서 언젠가는 외세에 항복할 줄 모른다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소위 스스로 천자국임을 자부했던 고려로서는 결코 인정하고 싶지않은 현실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결국 삼별초의 난을 야기시켰다. 몽고는 고려가 항복한 후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항쟁하는 삼별초⁶⁾와 그 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반외세를 내세우는 인물들을 죽임으로서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정한 효과를 얻었다.⁷⁾

다음 고려를 굴복시킨 몽고는 이번에는 일본침략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일본을 침략하는 것은 원의 위용을 과시하는 측면 외에 고려군을 일본과의 전쟁에 앞장세움으로서 고려의 군사력을 붕괴시켜 이상 더 저항할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면도 있었다. 이 시기 고려왕조는 철저한 타협책으로 전환하여 고려왕이 친조하여 세자의 원공주와의 혼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은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고려의 내정을 감시하고 원공주와의 혼인을 허락하여 고려를 원의 부마국으로 묶어둠과 동시에 세자가 태어나면 국왕이 되기 전까지는 항구적으로 원에 거주하게 하여 원의 풍습에 젖어들게 했다. 그리고 원의 필요에 따라 국왕을 교체함으로써 국왕이 반원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려왕의 견제세력을 약화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왕준과 흥복

충렬왕대의 이승휴도 『제왕운기』에서 원 간섭기에 있는 고려의 처지에 대한 비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제왕운기』 상권; 개벽한 이후에 이런 나라 처음이라. 하-고려; 기쁜시절 만나고서 신하 송휴 삼가 적다.)

6) 삼별초에 관해서는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외 다수 논문이 있다.

7) 주채혁, 위의 논문, 1989, 45쪽

원이다.

몽고의 고려통제책은 전형적인 以夷制夷 정책이었다. 원 간섭기에 고려의 땅에서 쌍성총관부와 동녕부, 그리고 탐라총관부가 존재하고, 요동지방에 홍복원, 왕준세력, 심양왕(심왕) 등이 존재한 것은 고려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의 분리정책으로 야기된 면이 가장 크다. 이같은 원의 분리책은 『원사』 고려전에 잘 나타나 있다.

A-1) 추밀원의 신료들이 고려를 정벌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처음 馬亭이 말하기를, “고려가…… 비록 지금 와서 조공을 바치지만 그 마음은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군대를 정비하여 일본을 친다는 명분으로 길을 빌려 그 틈을 타서 고려를 습격하여 군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⁸⁾

A-2) 前樞密院經歷 馬希驥가 역시 말하기를, “지금의 고려는 옛날의 신라백제고구려의 삼국이 합쳐져 하나로 된 것입니다. 대저 蕃鎮의 권세는 나누면 다스리기가 쉽고 제후가 강성하면 신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고려의 軍民의 많고 적음을 살펴서 둘로 나누어, 분할하여 다스립니다.”⁹⁾

원이 A-1)에서 馬亭의 말대로 고려를 그들의 영토로 만들지 않은 것은 아직 송과 일본이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고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면 고려 30여년의 항쟁사를 통해 볼때 끝까지 저항하면서 송이나 일본과 제휴할 수도 있었다. 이점을 몽고는 우려했던 것 같다. 여기에서 원은 이미 원종대부터 고려를 그들의 군현, 즉 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2)는 고려를 분열시켜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以夷制夷策이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원은 우선 고려를 배반하고 몽고에 귀부한 홍복원을 우대하였다. 홍복원은 고려와 몽고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몽고의 향도가 되어 고려를 침입했던 인물이었다. 그 공로로 원은 홍복원에게 1234년(고종 21)에 遼陽·瀋州 지역의 管領歸附高麗軍民長官으로 임명했지만 홍복원의 세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고려에서 불모로 보냈던 왕족 영녕공 준을 우대하였다.¹⁰⁾ 왕준은 고려 왕족 중에서 최초로 원 왕실 딸과 결혼하여 몽고에서의 위상을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대고려전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워 황제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왕준과의 갈등으로 홍복원이 죽은 후 원 세조는 1260(원종 1) 왕준에게 虎符를 차게 하고 당분간 이곳을 독점적으로 다스리게 했다. 이후 왕준의 위상이 높아지니 고려 관리들 중에는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한다.¹¹⁾ 이 사건은 원종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여 세자와 원공주와의 결혼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원종은 몽고와 유대를 강화시켜 그 비호아래서 왕권을 확립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제 고려국왕, 홍씨집안, 왕준은 서로를 견제하며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노력하였다. 왕준의

8) 『元史』 208, 列傳 高麗傳 至元 6年 11月(1269, 元宗 10年)

<樞密院議征高麗事 初馬亭以爲 高麗者 本箕子所封之地 漢晉皆爲郡縣 今雖來朝 其心難測 莫若嚴兵假道 以取日本爲名 乘勢可襲其國 定爲郡縣>

9) 『元史』 208, 列傳 高麗傳 至元 6年 11月

<前樞密院經歷馬希驥亦言 ……今之高麗 乃古新羅百濟高句麗三國 併而爲一 大抵藩鎮 權分則易制 諸侯強盛則難臣 驗彼州城軍民多寡 離而爲二 分治其國>

10) 金惠苑은 처음부터 영녕공을 인질로 데려간 것은 홍복원 견제를 위한 왕족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高麗後期 瀋王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16면)

왕준에 대해서는 이정신, 「영녕공 준 연구」 『고려시대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2004 참조

11) 『高麗史』 25, 元宗 元年 6月 戊申

<流刑部侍郎李凝于遠島 初凝從王如燕京 謂永寧公綽曰 公若欲爲王 誰曰不可 故及>

세력이 커지자 황제는 이번에는 홍복원의 아들 홍다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洪茶丘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음을 호소하여 황제로부터 高麗軍民總管의 職을 계승하도록 허락받았다.¹²⁾ 요동지역의 고려유민을 왕준과 나누어 통치하였다.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원 황제가 충렬왕 33년에 충선왕을 위해 만든 심왕제도였다.¹³⁾ 무중을 원황제로 옹립하는데 큰 공을 세운 충선왕은 고려왕과 옛고구려땅인 요동을 다스리는 심왕왕을 겸하였는데 이는 원이 왕준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홍씨집안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후일 심왕으로 바뀐 이 제도는 충선왕이 심왕의 지위를 조카 왕고에게, 고려왕은 충숙왕에게로 넘겨 주면서 복잡한 양상을 초래하였다.

충숙왕이 원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자 충숙왕의 지위가 강화될 것을 우려한 충선왕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고에게 심왕위를 양위하였던 것이다.¹⁴⁾ 이로 인해 야기된 고려왕과 심왕의 대립이 고려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¹⁵⁾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의 종실서열상으로 심왕이 고려왕보다 높다는 점에 있었다.¹⁶⁾ 이후 심왕은 몽골정권에 밀착하여 고려정권을 견제, 위협하는 세력으로 작용하여 입성을 야기시킨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려의 독자성 유지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기관은 정동행성이었다. 정동행성은 초기에는 일본정벌을 위한 전방사령부적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일본정벌에 실패한 이후에도 世祖는 일본 원정을 단념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동행성은 고려 및 중국 강남을 오가며 세 차례나 치폐가 거듭되었다.¹⁷⁾ 그러나 일본침략을 포기한 후에 다시 설치된 정동행성은 고려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에 간여하기 위해서, 또는 고려의 내정을 통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되었다.¹⁸⁾ 무엇보다도 정동행성의 역할

12) 『高麗史』 130, 洪福源傳

13) 심왕제도에 대해서는 김해원, 「고려후기 심왕연구」 이대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14) 李昇漢, 「高麗 忠宣王의 瀋陽王 被封과 在元 政治活動」 『全南史學』 2, 1988

岡田英弘은 충혜왕이 탄생하자 충선왕은 충혜를 충숙왕의 세자로 삼기위해 당시 세자로 있던 고에게 세자의 지위를 빼앗는 댓가로 심왕으로 임명했다고 하였으며 (『元の심왕と遼陽行省』 『朝鮮學報』 14) 김해원은 고의 정치적 지위상승을 견제하기 위해 世子位를 빼앗고 심왕위를 계승시킨 것으로 보았다.(『고려후기 심왕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60쪽) 김당택은 충선왕이 고를 심왕으로 삼아 충숙왕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그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충숙왕대의 심왕옹립 운동』 『원 간섭하의 고려정치사』 일조각, 1998. 81-82쪽)

15) 심왕제도를 이승한은 원의 분열정책보다 당시 정치세력들이 권력의 매개체를 찾아 이합집산한 결과로 파악했으나 필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시에 가장 큰 모순은 원 간섭하에 있다는 것이며, 원 간섭기가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문제였다. (李昇漢, 위의 논문, 『全南史學』 2, 1988 참조)

16) 김구진, 「원대 요동지방의 고려군민」 『이원순교수화갑기념 사학논총』 1986, 481쪽
주채혁,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위의 책, 33·37쪽

17) 고병익은 전기 정동행성이 2차례, 장동익은 3차례로 보고 있다. (고병익,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 上, 『歷史學報』 14, 1961. 장동익, 「정동행성의 치폐와 운영실태」 『고려후기 외교사 연구』 1994. 31-34쪽)

18) 정동행성에 관해서는 고병익,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 上·下, 『歷史學報』 14, 17·18, 1962

北村秀人, 「고려시대에 於ける 征東行省について」 『조선학보』 32

장동익, 「정동행성의 치폐와 운영실태」 『고려후기 외교사 연구』 1994 등이 대표적인 논문이다.

고병익은 정동행성이 고려의 내정감독 기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비록 형식상의 자리였지만 승상에는 고려왕이 임명되었는데, 이는 고려의 내정을 감독, 감시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동행성의 관리로 원칙적으로 고려인을 임용했던 것도 내정감독이라는 목적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평장정사·좌승·우승·참지정사 등의 요직을 거의 비워둔 것도 정동행성의 내정감독설을 성립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장동익은 정동행성의 기능을 시기별로 나누어 전기에는 긍정적 요소가 강한데 비해 후기로 갈수록 내려 내정에 직접 관여하여 고려의 반발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北村秀人은 정동행성이 고려통제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고려 자신의 보신을 위한 기관의 성격이 병존하였기 때문에 공민왕의 반원정책 이후에도 그 잔영이 남아있다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보았다.

과 더불어 주의할 점은 고려의 일반 관원보다 정동행성에 소속된 관리들이 더욱 원과 밀착되었으므로 사실상 이곳은 항구적인 친원관리 양성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¹⁹⁾

사실 고려국왕은 정동행성의 丞相으로서 행정관리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원세력이 직접 원에서 행정관리에 임명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왕의 추천권은 무색해지고 결국 정동행성이 부원배에 의해 장악되었다. 1339년(충혜왕 즉위년)에 조적이 심왕을 옹립하고자 군사를 일으켰을 때²⁰⁾ 정동행성의 관리들이 여기에 가담한 것이나 1347년(충목왕 3) 정치도감의 활동을 정동행성 이문소에서 방해하여 끝내 좌절시킨 것은²¹⁾ 정동행성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정동행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원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황제의 지시를 전달하여 그대로 행하게 하였다. 이같은 원의 통치는 고려가 원의 행정관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게 하였다. 이같은 고려의 지주성 損傷이 부원배들이나 그 아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결합되어 입성책동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3. 입성책동의 원인과 전개²²⁾

1) 1·2차 입성책동

입성책동이란 고려를 원의 행성으로 만들도록 획책한 사건이다. 당시 고려에는 이미 정동행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원나라의 다른 행성들과 같은 지방행정기관이 아니었고, 오히려 고려 국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지위를 원나라의 한 행성으로 규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관이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다른 행성들과 같은 새로운 행성을 설치하지는 것이었다. 이같은 입성책동은 고려가 몽고의 간섭을 받은지 30여년이 지나서 발생하였다. 30년이면 1세대가 지남을 의미하고 이제 고려사회의 주축인 젊은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몽고간섭기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고려사람이라는 국가의식 보다는 대원제국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처음 입성을 발의한 인물은 홍다구의 장남 홍중희였다. 다음 기록을 보자.

B-1) 요양성이 원의 성종에게 아뢰어 정동행성과 요양행성을 1省으로 합하여 본부를 동경(遼陽)에 옮기기를 요청하였다.²³⁾

B-2) 皇慶 초(1321, 충선4년)에 叛臣의 後裔인 홍중희 등이 황제에게 호소하여 행성을 세우고 국호를 삭제하려 할 때 경이 祖宗이 臣服한 공을 전부 아뢰어 帝旨를 받들고 드디어 행성을 파하였다.²⁴⁾

19) 장동익은 고려인으로서 원의 관리가 된 인물들이 원의 압제와 徵求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동행성의 지배와 운영실태」 위의 책)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으니, 그들은 원 간섭 자체를 거부하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 「고려사절요」 25, 충혜왕 즉위년 8월

21) 이익주, 「고려 후기 정치체제의 변동과 정치세력의 추이」, 『한국사』 5, 한길사, 1994. 255쪽

22) 입성에 관한 논문은 고병익,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 上·下, 『歷史學報』 14, 17·18, 1962

北村秀人, 「고려시대에 於ける 立省問題について」, 『광도대학기요』 1965

장동익, 「麗·元 交渉의 諸局面」, 『高麗後期 外交史 研究』, 1994.

김해원, 「원 간섭기 입성론과 그 성격」,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등이 있다.

23) 「高麗史」 32, 충렬왕 28년 12월

24) 「高麗史」 108, 金怡傳

위의 내용이 입성에 관한 첫 논의이다. 홍중희는 정동행성과 요양행성을 합하여 하나의 성으로 만들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이후 고려만의 단독 행성을 만들자는 견해와 구별된다. 그는 하나의 성으로 만들어 홍씨일족이 행성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고 한다.²⁵⁾ 그러나 당시 충렬왕이 원에 갔을 때 諸王과 부마중 4번째 서열이었다.²⁶⁾ 또한 원이 강력한 통제와 간섭을 위해 정동행성을 증치하고 闕里吉思를 평장정사, 耶律希逸을 좌승, 王思廉을 참지정사로 임명하여 고려에 파견하였지만 고려내부의 반발에 직면하여 활리길사는 충렬왕 27년 3월에, 그로부터 2달 후에 야율희일과 왕사렴이 돌아가고 증치된 행성관을 파할 정도로 정동행성의 고려내정 간섭의 기능은 약화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홍중희가 고려와 요양과 고려를 합치도록 하여 그가 통합한 행성의 승상이 되고자 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충렬왕 29년에 홍군상이 中書右丞이 되는 것으로 보아²⁷⁾ 고려와 친밀한 관계인 홍군상을 견제하여 요양성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원에 충성심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표명한 데 불과하다고 생각한다.²⁸⁾ 이즈음 원은 황제의 부마임을 내세워 아직까지도 천자의 의식제도를 쓰며²⁹⁾, 빈번하게 원의 통제에 반발하여 闕里吉思를 내쫓다시피한 점, 탐라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등 世祖舊制를 내세워 독자성을 강조하는 고려에 대해 일정한 경고를 날릴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원의 의도를 파악한 홍중희가 입성이라는 충격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 홍중희의 입성발의는 고려민과 관리 그리고 국왕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새로운 행성의 설치 는 정동행성의 폐지 뿐 아니라 고려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으므로 대다수의 고려인들은 당연히 반대하였다. 특히 이는 국왕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충렬왕은 즉시 원에 항의하였다. 그는 정동행성이 원래 고려 내정간섭이 아니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기구임을 강조하여 동경에서 개경까지가 1,500여 리요 개경에서 함포까지가 1,400여 리이므로 일본이 침입했을 때 고려국왕이 아니라 요양에서 지시를 받는다면 거리상 효율성이 떨어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원의 중서성에 는 따로 글을 보내어 자신이 일본을 방어하는 책임자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원나라는 거리문제는 역참의 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고려의 일본문제에 일리가 있으며, 또한 원의 입장에서 입성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충렬왕의 손을 들어주었다.³⁰⁾ 그런데 고려내부에서도 홍중희에 이어 입성책동을 시도하려 한 인물이 있었다.

C-1) 충렬왕 30년에 유청신 박경량 등이 정권을 오로지하고자 충선왕을 속여 말하기를, “본국의 도

25) 김혜원, 「심왕옹립운동과 입성론의 전개」 『고려후기 심왕연구』 이대 박사학위논문, 1999. 102쪽

26) 『高麗史』 31, 충렬왕 26년 6월

27) 김혜원, 앞의 논문. 101쪽

28) 홍군상과 홍중희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다. 그러나 홍중희에 비해 홍군상은 고려에 친밀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충렬왕이 원에 갔을 때 홍군상의 집에 숙박하기도 했다. 이는 홍군상을 고려 편으로 끌어들이어 홍씨집안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후 홍중희는 충렬 33년(1307)에 요양행성 우승이 되었다.

홍씨집안의 친족계보 ; 홍대순 - 홍복원 - 홍다구 - 홍중희-홍군상

29) 『高麗史』 32, 충렬왕 27년 4월 기축

30) 『高麗史』 32, 충렬왕 28년 12월 <충렬왕이 원의 중서성에 보낸 편지에는 만약 입성이 결정되더라도 자신을 승상으로 임명해 중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고려국의 운명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욱 챙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려의 운명과 국왕의 운명이 하나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이것이 괴리될 때 고려국왕은 고려국의 운명보다 왕실의 안위에 더욱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위의 입성론 뿐만 아니라 고종 말년 고려가 원과 강화를 맺을 때도 제일 먼저 고려했던 점이 왕실의 보존이었다.>

침의사사는 세조황제가 이미 올려 2품으로 삼았으며 또한 印을 하사하여 총애하셨고 지금 그 관리도 또한 帝命을 받아 제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 조정과 하나가 된다면 조정대신도 감히 능멸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국가의 萬全策입니다.” 라고 하였다. 충선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장차 표를 올리려 하였다.³¹⁾

C-2) 門下府 忠烈王 원년에 상서성을 병합하여 침의부라 하였다. 5년에 원에서 침의부에 정4품 印을 하사하였다. 7년에 원에서 秩을 올려 종3품으로 하였으며 19년에 원에서 고쳐 도침의사사라 하고 또 종2품으로 올렸다.³²⁾

충선왕의 폐행인 유청신, 박경량이 입성을 주장하여 충선왕도 한때는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입성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원조정과 하나가 되면 원 관리들이 고려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에 의하면 원이 고려의 문하부와 상서성을 합하여 침의부로 만들어 정4품으로 내렸다가 종2품으로 올렸다고 한다. 『원사』 91 백관지에서 행중서성의 편제를 보면 승상(1명, 종1품)-평장(2명, 종1)-우승과 좌승(2명, 정2품)-참지정사(2명, 종2)-낭중(2명, 종5)-원외랑(2, 종6)-도사(2명, 종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에서 종1품인 도침의사사가 원에서는 정동행성의 참지정사급의 대우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고려가 원에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원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입성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당시 충선왕은 충렬왕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원에 있었으므로 만일 고려가 원과 병합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면 그 공로로 왕자리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유엄·김이가 입성은 고려왕조가 없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왕도 필요없게 된다고 충선왕을 설득하여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

그로부터 불과 수년 후인 1308년(충선왕 1)³³⁾에 요양행성 우승 洪重喜에 의해 입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홍중희는 전번의 입성발의가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원 조정에서 논란이 되었음을 파악하고 자신의 요양 지방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분리 입성론을 내세웠다. 이 시기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심양왕에 봉해지고 요양 지방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자, 위협을 느낀 홍중희는 고려 만의 새로운 행성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³⁴⁾ 이 행성은 요양과 고려를 분리하여 요양은 홍씨집안이, 고려왕은 정동행성을 두어 고려만을 통제하게끔 하여 고려왕과 심양왕을 겸하고 있던 충선왕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중희의 2차 입성론은 金怡가 역대 선조들이 원에 臣服한 공로를 내세워 잠재웠다고 한다. 즉 홍중희보다 고려왕이 더욱 충성스러움을 내세워 입성론을 잠재웠던 것이다. 1·2차의 경우 고려가 당당한 자주국임을 내세우며 논리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일본방어에 적임국이라는 것과 고려의 충성심을 내세워 입성책동을 무마하였다. 이는 고려의 위상이 낮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원은

31) 『高麗史』 108, 金怡傳

32) 『고려사』 76, 지 30, 백관 「원 고려기사」에는 침의사물 종2품으로 올린 시기는 성종 원정 2년(1296, 충렬 22)라고 나와있어 시기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33) 위의 내용은 충선왕 4년으로 되어 있지만 입성발의는 그 이전 충선왕 1년 경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고병익, 위의 논문, 239-241쪽, 김혜원, 위의 논문, 103쪽 주)167참조.

34) 『高麗史』 33, 충선왕 원년 3월 정미

1312년에 홍중희를 潮州(廣東省 潮安)으로 유배시켰는데 이로서 입성논의는 잠잠해졌으며 더 이상 홍씨 집안에서 입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2) 3차 입성책동

3차 입성책동에는 유청신과 오잠이 주도하였다. 다음 내용을 보자

- D-1) 충숙왕 10년 정월에 유청신·오잠이 원나라에 글을 올려, <우리 나라에> 省을 설립하여 <원 나라의> 內地와 함께 하기를 청하였다.³⁵⁾
- D-2) 至治 3년(충숙왕 10) 조정에서 정동성을 파하고 三韓省을 세워 다른 성과 함께 규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³⁶⁾
- D-3) 이 때에 유청신·오잠 등이 모의하여 심왕 고를 세우려고 하였는데, 마침 英宗이 죽고 泰定帝가 등극하여(충숙 10년 9월) 유청신 등이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 행성을 세우고 국호를 파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平章政事 활아찰(闍兒察)·中書 검렬(怯劣) 등을 고려에 보냈다.³⁷⁾

충숙왕 10년(1323)에는 두 차례의 입성논의가 있었다. 충숙왕 10년 1월 경 태정제가 즉위하기 이전부터 고려에 독립행성 설치 건의가 있었다. 이 제의는 영종이 죽고 그해 9월 태정제가 즉위하고 12월에 도자사가 증서좌승상이 되자 다시 거론되었다. 이 입성책동은 충선왕 즉근이면서 심왕파인 유청신·오잠 등에 의해 전개되었다. 이보다 앞서 1320년에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실각하고, 고려인 환관 伯顔秃古思의 참소로 吐蕃으로 유배되었다. 또한 다음해에는 충숙왕이 國王 印을 빼앗기고 원나라에 억류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 원에서 심왕 고 등이 충숙왕을 참소하는 가운데 고려에서는 심왕옹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유청신과 오잠은 심왕 고의 편에 서서 입성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권한공 최홍철 등 심왕파 핵심 인물들이 입성론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심왕의 편에 섰으나 입성론에는 부정적이었다. 이 때의 입성론은 충선왕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지자 충선왕 즉근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심왕 고를 지지하는 세력이 그를 고려왕으로 옹립하려는 운동을 제기하면서 그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한다.³⁸⁾

그러나 당시 원나라에 머무르고 있던 이세현 등이 원의 증서성에 상서해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원나라의 승상 拜住, 집현전대학사 商議中書省事 王約³⁹⁾, 참의중서성사 回回⁴⁰⁾ 등이 반대함으로써 실행되지 않았다. 세 번째의 입성논의는 무려 1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앞서 입성론이 논의되었다가 곧 잠잠해진데 비해 세 번째는 원황제가 바뀐 후에도 1년간이나 지속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입성을 원하는 세력이 끈질기게 물밑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5) 『高麗史節要』 24, 충숙왕 10년 정월

36) 『元史』 178, 列傳 王約傳

37) 『高麗史』 108, 열전 金怡傳

38) 김혜원, 「고려후기 심왕연구」 이대박사학위논문. 1999. 107쪽

39) 『元史』 178, 열전, 王約傳

40) 『新元史』 198, 열전, 回回傳

이 입성론은 원에 의해 삼한성이라는 이름도 지어졌던 만큼 원 조정에서 깊숙이 거론되고 입성론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실제로 입성이 이루어질 단계에 가자 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갔다. 이때 입성론을 극구 반대하고 나선 인물은 원의 通事舍人 王觀이었다.⁴¹⁾ 왕관이丞相에게 상서하기를, 고려가 1) 오랫동안 世祖舊制로 독립이 인정되었으며 2) 고려는 원의 수도와 거리가 멀고 풍토, 습속, 법률 등 모든 것이 다르다. 3) 고려는 산이 많아 가난하다. 4) 원에 바치는 세금보다 省 관리의 녹봉 등 원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다. 5) 고려에 군사주둔 부담도 만만치 않다. 6) 입성 발의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만일 입성이 된다면 자주성을 잃은 고려의 저항세력이 준동하여 오히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제현 또한 왕관의 입성반대에 고무되어 적극 입성반대론을 개진하였다. 그는 우선 여·몽의 거란공격, 원종의 세조일현, 충렬왕의 입조, 여·원 연합국의 일본정벌, 부마국 등을 거론하여 고려와 원의 친밀관계를 강조한 후 1) 입성론은 세조의 구제에 위배된다. 2) 산이 7/10이나 되어 빈곤이 일상적이다. 3) 고려를 입성시킨다면 왜가 끝까지 저항한 것을 다행이라 여길 것이라고 하였다.

뒤이어 4차 입성론에서 충혜왕의 반대상소에 의하면 1) 세조대부터 고려의 자주권은 지켜졌으며, 2) 충선왕 원년에 홍중희가 입성론을 제의하자 원황제는 그를 遠方에 유배시켰다. 3) 고려는 땅이 척박하고 언어 풍속이 중국과 다르다.⁴²⁾는 등을 주장하였다. 충혜왕의 입성반대 논리는 이제현의 견해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원의 왕관의 입성론 반대는 비용문제와 군사충원 문제가 부가되어 당시 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원의 입장에서 파악한 왕관의 입성론은 원 관리들의 호응을 받아 원 내부에서도 고려를 차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부심, 만족감보다는 현실적인 利害關係에 더욱 주력함으로써 입성론 논의는 무위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유청신과 오잠이 심왕 고를 옹립하기 위해 입성론을 제의한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당시 심왕 고는 태정제의 조카 사위였다. 그러므로 황제의 결단에 따라 고가 고려왕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원의 입장에서서는 왕을 바꾸는 것보다 입성이 더욱 복잡하고 골치아픈 문제였다. 그리고 고려의 경우에도 충숙왕 9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권한공과 채하중이 고를 왕위에 세우기 위해 백관의 서명을 받을 때 절반정도가 서명한 데 비해⁴³⁾ 입성은 대다수가 거부하고 있다. 유청신과 오잠이 정말 심왕을 왕위에 앉히고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면 입성보다는 고를 왕위에 세우는데 더 주력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보다는 유청신·오잠에게 입성을 주장하도록 종용한 세력이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들의 모습은 4차 입성론에서 점차 드러난다.

3) 4 · 5 · 6차 입성책동

3차 입성론에서 대다수의 고려인이 입성을 반대함이 드러났음에도 다시 입성논의가 있었다. 4차 입

41) 『高麗史』 125, 열전, 유청신전

42) 『高麗史』 36, 충혜왕 즉위년(충숙왕 17년) 윤7월 무자

43) 『高麗史節要』 24, 충숙왕 9년 8 · 9월

성논의에서는 고려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앞장서서 입성을 거론하였다.

E-1) 충혜왕 즉위년 윤7월 무자에 낭장 김천우가 원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조정에서 前征 東行省 左右司郎中 蠻人 蔣伯祥의 書狀에 의하여 東國에 장차 행정 두는 것을 의논한다.” 하였다.⁴⁴⁾

E-2) 임신에 辛彦卿이 원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漢人 盧康忠 · 王誼 · 王榮 등 12명이 왕의 죄를 고소하여 나라를 없애고 軍民으로 삼고자 하니 왕은 급히 들어가 알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⁴⁵⁾

제4차 입성책동은 1330년 충혜왕이 즉위한 직후에 南蠻人 蔣伯祥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는 충숙왕이 퇴위하고 충혜왕이 즉위하자 원나라에서 입성책동을 일으켰으나, 충혜왕이 직접 원나라의 右丞相 燕帖木兒에게 간청하여 중지시켰다. 장백상의 입성은 상인계층과 결탁하여 시도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충숙 후 5년(1336)에 발생한 漢人 노강충 왕의 왕영의 5차 입성책동도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이 충혜왕이나 충숙왕의 측근이므로 각기 자신들이 지지하는 국왕을 위해 입성을 벌였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영달과 이익추구가 더 큰 목표였을 것이다. 또한 유청신 · 오잠이 고려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 입성발의가 실패로 돌아간 후 고려로 돌아갈 수 없었던 데 비해 외국인의 입성발의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입성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장백상과 연계된 인물을 살펴보자.

F-1) 攝行征東省事 蔣伯祥이 재물로 더럽혀져서 많이 危福을 지으니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였다. 원이 客省太史 都赤을 보내와서 장백상을 가두고 김심과 萬戶 洪綬를 權省事로 삼았다.⁴⁶⁾

F-2) 王三錫은 본시 南蠻人인데 . . . 일찍이 商船을 타고 燕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먹고 살았다. 충숙왕이 원에 있을 때 왕삼석이 幸臣에게 간청하여 왕을 만나니 왕이 기뻐하였다.⁴⁷⁾

F-3) 梁載의 初名은 蔣이며 燕南人이다. 왕삼석에 붙어서 그 인연으로 권세를 마음대로하며 朝野가 이를 미워하였다. 왕삼석이 죽으니 양재가 燕에 돌아갔다. 충숙왕이 원에 가니 양재가 또 蔣伯祥과 함께 흉모를 꾸미다가 이루지 못하였다. . . 양재가 또 친한 사람 李閔을 蔡洪哲, 安珪에게 부탁하여 과거에 합격시키니 그 때에 商賈, 雜類가 다투어 양재에 의지하였다.⁴⁸⁾

4차 입성책동을 주도한 인물인 장백상과 양재는 상인계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장백상은 蠻人이라는 것으로 보아 양자강 이남 사람이며 고려에서 이문낭중과 攝行征東省事を 지낸 인물이었다. 장백상은 충숙왕 때 정동행성 낭중을 지내면서 재물에 눈이 멀어 많은 비리를 저질러 원에 의해 갇힌 적이 있었다. 왕삼석 또한 강남인인데 그를 장백상과 더불어 입

44) 『高麗史』 36, 세가, 충혜왕 즉위년(충숙왕 17년) 윤7월 무자

45) 『高麗史』 35, 세가, 충숙후 5년 10월 임진

46) 『高麗史』 104, 열전, 김주정 부 김심

47) 『高麗史』 124, 열전, 王三錫

48) 『高麗史』 124, 열전 王三錫 附 梁載

성을 추진했던 연남인 양재가 추종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입성론의 중심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燕京의 漕運 집결지인 通州 관내의 宛平縣은 고려인의 집단거주지인 고려장이 있었다.⁴⁹⁾ 이들은 주로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양재가 이곳 사람이므로 이곳 고려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므로 4차 입성책동의 배후에는 상인계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백상, 양재 등은 연경의 고려유민, 고려의 상인계층과 결탁하여 입성을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충숙왕 후 5년 10월 기사에 보이는 漢人 노강충 왕의, 왕영도 상인들의 요청으로 입성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인은 원에서 몽고인, 색목인 다음 등급이므로 원의 차별대우를 받아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높은 관리가 되기도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들은 말단 관원으로서, 주로 무역상의 뇌물을 받고 왕의 죄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입성을 주장하였다. 만일 성사된다면 그 공로로 그들은 행성의 관리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충숙왕이 즉시 원으로 가서 1년간이나 머물렀던 것으로 보아 이들의 입성책동이 심각한 상태였으리라 추정된다.

이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입성론은 원의 입장에서는 원의 위력과 자존심을 과시하는 점에서도 나쁠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차례 일어나는 입성론을 방치하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입성론은 원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차 입성때는 충혜왕은 왕위에서 쫓겨나 귀양도중 죽음을 당하는 참변을 겪었다. 6차 입성을 보자.

G. 경자에 李芸 曹益清 奇轍 등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중서성에 상서하여 왕의 貪淫不道함을 極言하고 省을 세워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을 요청하였다.⁵⁰⁾

제6차는 1343년(충혜왕 복위 4)에 이운·조익청·기철 등이 충혜왕이 貪淫不道하므로 고려에 행성을 세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6차에서는 상인의 개입여부는 알 수 없고 입성론자들은 기황후의 오빠 기철을 내세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것 같다. 이 때 원나라에서는 충혜왕을 퇴위시키는 정도에서 사태를 무마하였으나 충혜왕이 당한 고초는 참혹하였다.

H-1)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동성에서 조서를 듣는데 타적(朶赤) 등이 왕을 발로 차고 묶거늘 왕이 급히 高院使를 부르자 고용보는 왕을 꾸짖었다.⁵¹⁾

H-2) 왕<의 일행>이 肅州에 이르니, 왕이 州守 安鈞에게 이불을 요구하였다. 안균이 바치지 않고 타적 등에게 고하기를, “왕이 탐욕하고 음란하여 죄를 얻고도 나의 이불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였다.⁵²⁾

충혜왕을 잡아갈 때 원사신이 고려왕을 발로 차서 묶었다는 것은 이제 고려국왕의 권위가 최악의 상태로 실추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숙주 수령은 귀양을 가는 국왕이 이불을 달라는 것을 거절하고 원 사신에게 일러바치는 정도였으니 이 사건은 안균이 고려 관리가 맞는지, 고려라는 국가의 존재자체에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이는 남의나라 지배에 있는지 80년, 고려의 존립이나 자존의식

49) 장동익, 「여·원교섭의 제국면」 위의 책, 148쪽

50) 『高麗史』 36, 世家, 충혜후 4년 8월

51) 『高麗史』 122, 고용보전

52) 『高麗史節要』 25, 충혜왕 4년 11월

이 최악의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원은 고려에 행성을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고려사회의 부패와 무너진 자존의식이 고려가 입성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이다.

4. 고려후기의 상인과 입성책동

입성책동을 제안한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 I-1) 충렬왕 30년에 유청신 박경량 등이 國柄을 오로지하고자 하여 충선왕을 속여 말하기를, “본국의 도침의사사는 세조황제가 이미 올려 2품으로 삼았으며 또한 印을 하사하여 총애하였고 지금 그 관리도 또한 帝命을 받아 제수된 것입니다. 원 조정과 하나가 된다면 조정대신도 감히 능멸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국가의 萬全之策입니다.” 라고 하였다.⁵³⁾
- I-2) 충숙왕 10년 정월에 유청신. 오잠이 원나라에 글을 올려, <우리 나라에> 省을 설립하여 <원나라의> 內地와 같게 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⁵⁴⁾

여기에서 홍중희가 제안한 1·2차 입성은 제외하고 고려인, 강남인, 한인 등이 왜 그렇게 입성을 주장했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고려사회에서 집요하게 입성책동이 일어나는 것은 첫째로 부원배들의 입신양명과 정치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입성론을 내세울 때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입성을 반대하는 이유들이 『고려사』에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찬성하는 내용은 극히 소략하다. 이것은 『고려사』 편찬자가 제외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쩌면 입성이 당시 고려의 상황으로서는 상식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민족의식이 분명한 지금으로서 입성론은 친일파에 버금가는 부원배들의 반민족적인 작태이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게 치열한 도덕적 잣대를 맨 것 같지 않다. 우선 입성론이 표면화될 수 있었던 근거로는 위의 1)·2)에서처럼 관직체계의 위상이 올라가서 원 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고려 사람이 원의 관리가 되는 데도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하는 의도였으리라 보여진다. 그렇게 함으로서 고려인은 몽고인과 동등하게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색목인의 대우는 받으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⁵⁵⁾

또한 원은 고려에 과중한 공물을 요구하였으며 또 고려왕이 원에 갈 때 필요한 盤纏과 滯留費用 또한 막대하였다. 그리고 충렬왕대에는 일본원정의 부담을 고스란히 고려가 지불해야 했다. 이에 고려는 과중한 공납물을 모두 농민에게 전가시켰으며 반전과 체류비용은 임시부가세인 과렴을 통해 지배층에게 부과시켰다.⁵⁶⁾ 고려왕조의 재정빈곤은 이제 지배층에까지 조세탈취 형태로 나아가게 되니 일부 고려 관리들 중에는 차라리 원에 편입되어 세금을 내는 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위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려가 원의 한개 省이 된다면

53) 『高麗史』 108, 金怡傳

54) 『高麗史』 35, 충숙왕 10년 정월

55) 이계현, 『益齋集』 8, 표 <乞比色目表>에 의하면 당시 고려인의 목표는 색목인과 동등한 대우였다. 장동익은 고려인은 색목인과 한인 사이에 위치시워져 있다고 하였다.(『여원교섭의 제국면』 위의 책, 191쪽)

56) 『高麗史』 79, 食貨志 科斂

박종진, 『조세제도의 변화』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 출판부, 2000. 172-173쪽

무역에서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음 기록을 보자.

- J. 고려왕(충렬왕)이 周侍郎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물건을 판매하니 담당관리가 泉州 廣東 市舶司의 예에 의거하여 3/10을 거두려 하였다. 公(史燿)이 말하기를, “고려왕은 원의 부마이고. 또 오랫동안 귀속되어 있었는데 어찌 해외의 신복하지 않는 나라와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오직 명령대로 1/30세만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⁵⁷⁾

옛부터 고려는 중국과 무역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조공을 통한 무역형식이었으므로 특별히 관세는 없었다. 그러나 국가간의 조공을 통한 무역이 아닌 사무역이라면 관세를 물어야 했다. 당시 동북아 전역이 원에 편입되었지만 고려의 경우는 국가가 온전하게 유지되었으므로 관세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 『元史』食貨志 市舶條에 의하면 원은 국내의 商稅는 1/30을 부과하고⁵⁸⁾ 다른 나라와의 교역 품은 1/10-1/15의 抽分 즉 關稅를 거두었다. 원나라는 관청에서 주관하여 교역을 많이 하였는데, 관이 소유한 배로 관이 자본을 내어서 무역인을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여 이윤을 얻으면 10중 7은 관이 소유하고 3은 무역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다.⁵⁹⁾ 그런데 원은 고려에 3/10을 매기고 있다. 아마 주시량은 원의 요구로 고려에서 가져온 물품을 바로 원의 官船에 넘겼으며, 원 관리는 물건을 팔아주는 대가로 30%의 이익을 챙겼던 것 같다.⁶⁰⁾ 이를 고려가 원했을 리는 없고 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고려의 물자를 관선에 넘기도록 종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고려가 원의 한 줌이 된다면 1/30의 商稅만 부담하고 1/10-1/15의 관세나 3/10을 부담할 필요는 없게 될 뿐 아니라 원정부의 부당한 억매를 막을 수도 있으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상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점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친원세력이나 한인들이 입성문제를 거론하도록 무역상들이 은밀하게 후원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는 건국 초부터 무역이 활발하였다. 고려전기가 송과 거란이, 중기가 송과 여진이라면 후기에는 원과의 교역이 활발하였다. 그리하여 대상인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들은 정부의 요구에 의해 관리들과 동등하게 과렴을 내었을 뿐 아니라⁶¹⁾ 납속보관책을 통해 관직에 오르거나 권세가를 등에 업고 장사를 하여 더 많은 부를 획득하였다. 다음은 출세한 상인들의 기록이다.

- K-1) 蔚州소속의 部曲人인데 그 조상은 부유한 商人이었다. 朴球는 그의 자산을 물려 받았으므로 세상에서 대단한 부자로 알려졌다. 元宗때 上將軍이 되었다.⁶²⁾

- K-2) 孫琦는 본시 상인으로 충숙왕의 幸臣이 되어 여러 관직을 거쳐 대호군으로 승진되었다.⁶³⁾

57) 『榮祿大夫 福建等 處行中書省 平章政事 大司農 史公 神道碑』, 姚燾 『牧庵集』 16, 神道碑<高麗王遣周侍郎 浮海來商 有司求比 泉廣市舶 十取其三 公(史燿)曰 王子屬爲副車 且內附久 豈可下同海外不臣之國 惟如令三十稅->(張東翼,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 출판부, 1997 재수록)

58) 『元史』 94, 食貨2 商稅

59) 『元史』 94, 食貨2 市舶條

<凡隣海諸郡 與蕃國往還互易舶貨者 其貨以十分取一 粗者十五分取一 以市舶官主之……官自具船 給本 選人入蕃 貿易諸貨 其所獲之息 以十分爲率 官取其七 所易人得其三 ……其諸蕃客旅 就官船賣買者 依例抽之>

60) 장동익은 3/10을 抽分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추분은 1/10-1/15이며, 3/10은 무역으로 생긴 이익금은 나누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張東翼 『元人の 高麗에 관련된 記事』, 『元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 출판부, 1997 pp.326-327

61) 『高麗史』 79, 食貨志 科斂 忠烈왕 15년 2월

62) 『高麗史』 104, 列傳17 金方慶 附 朴球

<朴球蔚州屬部曲人 其先富商 球籍其資以饒財稱 元宗時爲上將軍>

K-3) 崔老星은 색목인으로 부유한 상인인데 본명은 兪黑廝이다. 역시 양재의 연줄로 하여 封君되었다.⁶⁴⁾

울주는 옛부터 땅이 기름지고 물고기와 소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⁶⁵⁾ 경주와 가까워 신라시대부터 무역이 활발했으므로 朴球의 선조는 富를 축적했던 것 같다. 손기는 어떻게 해서 부를 취득한 상인인지 알 수 없으나 충숙왕과의 연결은 원나라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들은 고려와 원을 오가면서 무역에 종사했다고 보여진다. 최노성은 色目인 상인으로서 고려에 와서 충숙왕의 측근이 되었는데 이 같이 외국인으로서 고려의 관리가 된 사람은 南蠻人 王三錫, 燕南人 梁載 등이 있다.

상인이 관직에 나아간 것은 숙종대부터이지만, 특히 몽고 간섭기에 들어섰을 때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왕의 의도적인 조치로서 충숙왕대부터 더욱 많아졌음을 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들은 무관직을 받아 왕의 측근이 되어 상업활동에 대한 자문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왕과 결탁하여 직접 상업활동에 뛰어들기도 하였으며 공물대납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였다.⁶⁶⁾ 특히 충혜왕은 상인을 통하여 왕 개인의 부를 취득하기에 노력하였으며 여기에는 원공주도 있었다.

L-1) (제국대장)공주는 일찌기 잣과 인삼을 중국 강남으로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 후 내시들을 각지로 보내어 물건을 구하였는데, 그 물건이 생산되지 않는 지방에서도 강제로 거둬들어 백성들이 괴로워하였다.⁶⁷⁾

L-2) 南宮信을 시켜 포목 20만필, 금 은 초화를 가지고 幽·燕지방에 가서 무역하게 하였다.⁶⁸⁾

L-3) 銀川翁主 林氏는 商人 林信의 딸로서 단양대군의 노비였는데, 砂器를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⁶⁹⁾

고려 후기는 왕과 왕비를 위시하여 권력을 배경으로 한 계층의 상업활동이 활발하였다. 즉 제국대장공주는 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잣과 인삼을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며, 충혜왕은 신하인 남궁신에게 국내의 물자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무역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외에 권력층을 등에 업고 부자가 된 砂器商 林信이 있다. 충혜왕이 상민인 그의 딸을 궁주로 삼은 것은 왕이 상업자본과 결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상인 집단에서 후궁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상업의 융성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같은 무역의 융성은 주로 원과의 무역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고려가 원에 치루어야 할 관세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입성만 된다면 관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으므로 은밀하게 책동을 유도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고려 내부에는 국왕을 위시하여 입성에 대한 반대견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청신, 오잠이

63) 『高麗史』 124, 列傳 孫琦 <孫琦本商人 爲忠肅倅臣 累遷人護軍>

64) 『高麗史』 124 王三錫 / 崔老星, <老星 色目富商 本名兪黑廝, 亦因載, 得封君>

65) 『新增東國輿地勝覽』 22, 慶尙道 蔚山郡 古蹟 古邑城 李詹의 記

66) 金東哲, 「고려말의 流通構造와 상인」, 『釜大史學』 9, 1985. p.5.

67) 『高麗史』 89, 列傳2 后妃 忠烈왕 <公主 嘗以松子人參 送江南獲厚利 後分遣宦官求之 雖不產之地 無不徵納 民甚苦之>

68) 『高麗史』 36, 忠惠王3年 3月 丙申 <遣南宮信賞布二萬匹 及金銀鈔 市于幽燕>

69) 『高麗史』 89, 列傳2, 后妃 忠惠王 <銀川翁主林氏 商人信之女 丹陽大君之婢也 賣沙器爲業>

입성론을 건의한 후 고려에 영영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도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인들은 고려인이 아니면서 고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원에서 발언권을 가진 외국인을 주목했다. 그들이 장백상, 양재, 노강충, 최노성 등의 색목인 한인이었던 것이다. 또한 양자강 이남의 한인들 상당수가 상업에 종사했던 만큼 고려의 富商과 밀접한 연계가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원간섭기를 벗어나고 조선왕조가 수립되면서 명의 쇄국책과 더불어 조선의 무역은 크게 축소되었다. 원간섭기에 발달한 상업과 무역이 조선왕조에 들어서면서 약화된 것은 조선의 정책뿐 아니라 상인들이 지배층과 결탁하여 백성의 수탈체제 위에서 주로 사치품 위주로 거래하였다는 점,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입성도 마다하지 않았던 상인의 행태가 원 간섭을 벗어난 이후에는 정당성을 상실하여 질타를 받음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5. 맺음말

원 간섭기에 들어서면서 원은 고려를 통제하기 위해 철저하게 이이제이책으로 일관하였다. 즉 요동·심양의 흥복원 왕준을 우대하였으며, 이어서 왕준의 위상이 약화된 후에는 심양왕(심왕)제도를 만들었다. 고려는 삼별초 봉기가 실패함으로써 반원을 내세우는 상당수의 인물이 희생되었고 여·원연합군의 일본정벌이 실패함으로써 대다수의 군사력이 해체되었다. 고려는 자주국가로 인정되어 고려왕이 다스린다는 점에서 독립국이기도 하나 다루가치가 파견되고 정동행성이 설치되어 고려 내정을 간섭하고 필요한 경우 원 황제의 직접 명령을 받은 사신이 파견됨으로서 자주성이 손상되었다. 이같은 자주성 상실이 부원배와 그 아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결합되어 입성책동이 일어났다.

입성론은 무려 6차례나 일어났다. 1·2차 입성론은 홍중희, 3차가 고려관리 유청신 오잠, 6차가 기철에 의해 일어났다면 4·5차 입성론은 중국의 漢人들에 의해 일어났다. 고려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한인들의 입성 주장 배후에는 고려 상인층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몽고로부터 몽고인, 색목인, 한인, 남만인의 순서로 엄격한 차별대우를 받았던 한인들은 관리가 되어 출세하기는 어려웠다. 한인들 중 특히 강남사람들은 주로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여 많은 부를 취득하였는데 그들은 고려와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원이 강대한 세계제국으로서 각국의 물자가 원의 연경과 주변 항구에 들어오게 되자 고려 역시 원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무역상의 가장 큰 불만은 고려가 원의 지배와 간섭을 받으면서도 관세는 외국인과 같이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또한 부를 토대로 중앙정계까지 진출하게 되자 그들은 입성을 원하는 하나의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입성론이란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특별히 정권장악에 실패한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찬성하는 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쪽을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원에서 입성을 논의하게 한 것이 4·5차 입성론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의 고려인은 물론이고 원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고려에서 입성론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아 입성을 주장했던 유청신은 고려에 돌아올 수 없었다. 입성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은 고려의 국가의식이 아직 살아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원간섭기를 벗어나고 조선왕조가 수립되면서 명의 쇄국책과 더불어 조선의 무역은 크게 축소되었

다. 원간섭기에 발달한 상업과 무역이 조선왕조에 들어서면서 약화된 것은 조선의 정책뿐 아니라 상인들이 지배층과 결탁하여 백성의 수탈체제 위에서 주로 사치품 위주로 거래하였다는 점,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입성도 마다하지 않았던 상인의 행태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질타를 받음으로서 자기 목소를 낼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Key word : 정동행성 입성책동, 몽고의 지배방식, 南蠻人, 漢人, 무역상, 충숙왕, 충혜왕

요 약 문

고려는 30여년간 몽고와의 전쟁을 건디지 못하고 항복하였다. 오랫동안 저항의 전리품으로 몽고는 고려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영역에 편입시켰다. 드러나 원은 고려를 철지한 이이제이책으로 통치하였다. 즉 遼陽 · 瀋州의 흥복원 왕준을 우대하였으며, 이어서 왕준의 위상이 약화된 후에는 심양왕(심왕)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다루가치를 파견하고 정동행성을 설치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원 황제의 직접 명령을 받은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같은 자주성 상실이 부원배와 그 아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결합되어 입성책동이 일어났다.

입성론은 무려 6차례나 일어났다. 1 · 2차 입성론은 홍중희, 3차가 고려관리 유청신 오잠, 6차가 기철에 의해 일어났다면 4 · 5차 입성론은 중국의 漢人들에 의해 일어났다. 고려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한인들의 입성 주장 배후에는 고려 상인층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몽고로부터 몽고인, 색목인, 한인, 남만인의 순서로 엄격한 차별대우를 받았던 한인들은 관리가 되어 출세하기는 어려웠다. 한인들 중 특히 강남사람들은 주로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여 많은 부를 취득하였는데 그들은 고려와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원이 강대한 세계제국으로서 각국의 물자가 원의 연경과 주변 항구에 들어오게 되자 고려 역시 원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무역상의 가장 큰 불만은 고려가 원의 지배와 간섭을 받으면서도 관세는 외국인과 같이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또한 부를 토대로 충숙왕 충혜왕의 후원을 받아 중앙 정계까지 진출하게 되자 입성을 은밀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입성론이란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특별히 정권장악에 실패한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찬성하는 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족을 끌어들여 그들로 하여금 원에서 입성을 논의하게 한 것이 4 · 5차 입성론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의 고려인은 물론이고 원에서도 부정적이었다. 특히 고려에서 입성론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아 입성을 주장했던 유청신은 고려에 돌아올 수 없었다. 입성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은 고려의 국가의식이 살아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원간섭기를 벗어나고 조선왕조가 수립되면서 명의 쇄국책과 더불어 조선의 무역은 크게 축소되었다. 원간섭기에 발달한 상업과 무역이 조선왕조에 들어서면서 약화된 것은 조선의 정책뿐 아니라 상인들이 지배층과 결탁하여 백성의 수탈체제 위에서 주로 사치품 위주로 거래하였다는 점, 부의 축적

을 위해서는 입성도 마다하지 않았던 상인의 행태가 질타를 받음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Koryŏ-Mongol Relations: Merchants and the Attempts to Abolish the Koryŏ State

Lee Jungshin (Professor, Hannam University)

Koryŏ fiercely resisted Mongol invasions for more than three decades before it finally surrendered. Koryŏ was the only East Asian state that retained its own kingship and maintained some degree of autonomy under the Mongols. Nevertheless, the Yuan control of Koryŏ was unprecedented, and the Mongol Yuan court compromised the authority of Koryŏ kings by favoring Hong Pogwŏn and Wang Chun in Manchuria and later establishing a separate Korean monarchy of Shenyang-wang (1307-1310) or Shen-wang (from 1310) who exerted power over Koryŏ people living in the Liaodong region. There were also proposals to downgrade the Koryŏ state from kingdom to the province. progressed to serious level before the Yuan court finally abandoned the idea. Of the six attempts to destroy Koryŏ as a separate political entity, it appears that the fifth and sixth attempts were provoked by Han Chinese. Han Chinese did not seem to have any direct stake in Koryŏ, but there had Koryŏ merchants behind them.

As the Mongol court favored Mongols and *semu* and discriminated against Han Chinese for government service, many, especially in South China came to work in commerce and trade with Koryŏ. Although Koryŏ was a part of the Mongol empire, it remained a separate state and merchants had to pay tariff at higher rate. Thus, the merchants strove to put forward a proposal to abolish the Koryŏ state, but there were strong opposi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Chosŏn Korea and Ming China, interstate trade declined substantially. That some had proposed the abolition of the Korean state may led to a backlash against merchants in Chosŏn and may partly account for the decline of international trade.

Keywords: Proposal to abolish the Koryŏ State, Eastern Expedition Field Headquarters, Mongol Rule, Nanren, Hanren, Merchants, King Ch'ungsuk, King Ch'unghye.